

# 5·18 당시 전두환 광주방문설 밝혀지나

### 군 통신 내용 녹음된 '방탐 기록물' 존재 증언 나와 극비 통신보안부대 광주서 암약...자료 훼손 우려도

증언으로만 존재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당시 광주 방문설을 입증할만한 물적 증거의 존재가 처음으로 알려졌다. 당시 광주에 주둔하던 '통신보안부대'가 타 부대 통신 내용을 몰래 수집한 '방탐(方探) 기록물'로 전 씨의 광주방문 때 군 통신 내용이 그대로 녹음돼 있을 것이라는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9일 보안사령부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5월 항쟁 당시 광주에는 505보안부대와 별도로 보안사령부 소속 '615 통신보안부대'가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군보안부대령은 보안사령부와 보안부대 외에도 부대 지원 보안부대, 통신보안부대, 보안교육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615 통신보안부대는 505보안부대의 명령·보고 체계에서 벗어난 독립된 부대로 광주 상무대에 주둔하며 주요 방탐 활동을 했다.

방탐이란 유·무선 통신이 이뤄지는 위치를 찾아내는 기술로 교신의 내용까지 도·감청할 수 있다.

이러한 방탐 장비를 통해 남파간첩을 감시·적발하는 임무를 맡았던 통신보안부대는 역쿠데타를 우려한 신군부의 지시로 아군의 무전·통신 내용까지 방탐 대상으로 삼았다.

이 관계자는 "12·12 이후 전 씨가 가장 우려했던 건 군 내부의 반기 세력이었다"며 "전 씨는 최측근인 정호흥 특전사령관

까지 방탐할 정도로 누구도 믿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5월 항쟁이 한창이던 5월 21일 전 씨가 광주를 방문했다면 내·외부적 위협 요소를 파악하는 것은 615통신보안부대의 필수 임무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전 씨가 방문한 1전비(제1전투비행단·광주송정공항) 주변을 집중 방탐했을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통신보안부대의 방탐 활동으로 포착된 교신 내용은 장비의 특성상 편집·수정을 할 수 없어 날 것 그대로 마이크로필름에 저장됐다.

방탐 기록은 북한의 대남 공작활동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한·미 공조를 위해 함부로 폐기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문서와 달리 마이크로필름에는 음성이 고스란히 저장돼 왜곡·변조를 할 수 없다"며 "여기에는 전 씨가 광주를 오간 상황뿐만 아니라 광주 항쟁 당시 군 내부의 은밀한 교신들이 모두 들어 있을 것"이라며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정보요원 출신인 김용장씨는 지난 3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전 씨가 21일 점심 즈음 광주를 방문해 정 사령관과 이재우 505보안부대장을 만나 회의를 하고 돌아갔다"며 "전 씨가 발표 명령을 내린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을 확보한다면 풀리지 않은 의문들을 모두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39년 동안 이뤄진 진상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상당수 마이크로필름은 내용이 지워진 채 발견된 바 있어 615통신보안부대가 생성한 자료가 그대로 남겼을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정보요원 출신인 김용장씨는 지난 3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전 씨가 21일 점심 즈음 광주를 방문해 정 사령관과 이재우 505보안부대장을 만나 회의를 하고 돌아갔다"며 "전 씨가 발표 명령을 내린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박은진 기자 pej269400@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

9일 오후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열린 장보기 체험행사에 참가한 무등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 경찰에 마약 신고...알고 보니 연꽃 분말

### 영암서 "택배봉투에 백색가루" 마약 의심신고 헤프닝

영암의 한 아파트에 수상한 백색가루가 든 택배가 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9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0분께 영암군 모 아파트에서 "택배봉투 안에 백색가루가 들어 있었는데 마약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실 옆 택배 보관소 한쪽에 택배 봉투가 겹면이 일부 뜯긴 상태로 놓여 있어 이상히 여기고 열어봤다고 진술했다.

택배 안에는 백색 가루가 소량씩 든 투명한 작은 비닐 3개가 담겨 있었다. 비닐에는 베트남어로 쓰인 글씨와

연꽃 그림이 있었다.

신고를 받은 영암 경찰과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등은 현장에 경찰 통제선(폴리라인)을 설치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백색 가루의 정체는 마약이 아닌 연꽃 씨앗 가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택배 수령인으로 적힌 베트남 출신 주민이 직접 택배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감식 결과 마약 성분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 광주교대 여학생 화장실에 '몰카'...가해자 퇴학 요구

광주교대 남학생이 수학여행 중 화장실에서 동기 여학생을 촬영한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광주교대 모 학교 학생들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 16명은 지난달 22일 지도교수 1명과 함께 제주도 수학여행을 떠났다.

여행 마지막 날인 4월 25일 오전 1시께 A 학생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꺼내 촬영한 정황이 목격됐다.

A 학생은 화장실에서 본 휴대전화 카메라가 B 학생의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날 저녁 전화로 확인

한 결과 B 학생은 촬영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했다.

같은 학교, 같은 학년 학생 27명은 이런 내용의 대자보를 학생회관에 붙이고 대학 SNS 커뮤니티에도 올려 공론화했다.

학생들은 "가해자의 교단 진입을 막기 위해 학우들에게 알린다"며 "학교 측에 가해자의 퇴학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대학본부도 성폭력 예방 운영위원회를 열어 진상을 파악하고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 제주·광주교육청, 4·3, 5·18 교육 전국화

### 제2차 제주-광주 공동 포럼 개최

제주 4·3, 광주 5·18 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를 위해 두 지역 교육청이 다시 손을 잡았다.

광주시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은 9일 오후 광주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4·3과 5·18, 평화·인권교육으로 전국을 잇다'를 주제로 공동 포럼을 열었다.

지난달 10일 제주에서 열린 포럼에 이

은 두번째 행사다.

양 교육청은 4·3과 5·18 민주화 교육 활성화 업무 협약을 했다.

협약 내용은 △학교 기념행사, 계기 수업,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교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체험학습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서로 지역을 경유하는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

시 테마형 프로그램 운영 △4·3, 5·18 교육 전국화 협력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은 협약 후 기자회견에서 "제주 4·3과 광주 5·18은 불의한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자 현대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비극이었다"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되풀이 될 수 있다"고 협약 배경을 설명했다.

두 교육감은 "아픈 역사를 딛고 평화와 인권, 민주와 통일이라는 상징적 가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며 "제주와 광주교육청이 제주 4·3과 광주 5·18을 연계한 평화·인권교육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특히 교육 전국화를 공동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들 교육감은 "역사적 역사를 왜곡하고 폄하하려는 시도가 적지 않다"며 "4·3은 제주만의, 5·18은 광주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역사이고 교육 전국화는 시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대구 2·28 민주운동, 4·19 민주혁명, 부마항쟁, 6·10 민주항쟁 등 근대사 주요 사건 교육이 올바르게 이뤄지도록 전국 시도 교육청과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의사가 교육감들은 밝혔다. /윤규진 기자

## 명의로용·양귀비 재배...광주서 마약 사범 잇따라 검거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등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거나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재배한 여성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타인 명의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 4월 27일까지 광주 남구 한 의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졸피뎀' 1천815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다.

A 씨는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한 카페에서 물건을 훔친 다음 병원에 들러 졸피뎀을 처방받았다고 신고를 받고 행적을 추적하던 경찰에 탐미가 붙잡혔다.

남부경찰서는 또 자신의 집안 내 화장실 바닥에서 양귀비 55주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C(7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C 씨는 "뒷밭에서 스스로 자라난 양귀비꽃이 예뻐 재배했다"고 진술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지역신문발전위원회  
Local Press Commission

## 지역신문을 보면 지역이 제대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을 제일 잘 아는 건 '지역신문'입니다.  
지역신문을 읽는 당신,  
내 고향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문구독, 아는만큼 '힘'이 됩니다.